

건져주시는 하나님 [5]

1.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(14:1~31)

1) 애굽의 추격을 막으시는 하나님(14:1~20)

(1) 하나님께서 진행 방향을 바꾸신다.(1~4)

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다.

②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.

③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.

(2) 마음이 바뀐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한다.(5~9)

① 선발된 병거 ()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을 다 거느렸다.

②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 근처에 도착하였다.

(3)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대답(10~14)

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를 발견하고 ()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.

② 백성들은 모세에게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() 한다.

③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면서 () 한다.

④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언한다.

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한다.

⑥ 하나님께서 싸우실터이니, ()고 명한다.

(4)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.(15~20)

① “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.”

② “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.”

③ “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따라 들어가게 할 것이다.”

④ “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.”

⑤ “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.”

⑥ 이스라엘 앞에 가던 ()와 구름 기둥이 백성을 뒤로 옮겨간다.

⑦ 애굽 진에는 흑암과 ()이 있고,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()이 이어진다.

⑧ 하나님께서 () 이스라엘과 애굽이 가까이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.

2) 홍해 속의 이스라엘과 애굽(14:21~31)

(1)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사들(21~25)

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주셨다.

②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걸어갔다.

③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.

④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앞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하셨다.

⑤ 애굽 군대는 그제서야 ()을 깨닫고 도망하고자 한다.

(2) 흉해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애굽 군사들(26~31)

- 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,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.
- ②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빠져 하나도 남지 못하였다.
- ③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사이로 걸어갔고, 애굽 군사들의 주검을 보았다.
- ④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()을 보았기에,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.

2.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(15:1~21)

1) 모세의 노래(15:1~18)

(1)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(1~10)

- ①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.
- ②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.
- ③ 여호와는 용사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.
- ④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매,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.
- ⑤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시고, 원수를 부수시나이다.
- ⑥ 주의 진노에 주를 거스르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.
- ⑦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,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기니이다.
- ⑧ 원수들이 탈취하고자 하였으나,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잠겼나이다.

(2) 하나님을 향한 열방의 두려움과 찬양(11~18)

- ① 신 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.
- ②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.
- ③ 주께서 오른손을 드실 때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.
- ④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.
- ⑤ ()과 ()과 ()과 () 주민이 다 낙담합니다.
- ⑥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방 민족들이 다 돌같이 침묵할 것입니다.
- ⑦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.
- ⑧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처소요 성소입니다.
- ⑨ 하나님께서 ()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.

2) 미리암의 노래(15:19~21)

- (1) 미리암은 악기를 들고 춤추며 ()을 찬양한다.
- (2) 다른 모든 여인들도 미리암을 따라 함께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.

3.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(15:22~17:16)

1) 마라와 엘림(15:22~27)

(1) 마라의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(22~26)

- ①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()을 걸었지만, 물을 얻지 못하였다.
- ②마라에서 물을 얻었으나,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.
- ③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,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.
- ④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키시고,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.
- ⑤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()하셨다.
- ⑥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,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,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,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.
- ⑦하나님은 백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심을 밝히신다. - 여호와 ()
- (2) 물 샘 열 둘과 종려나무 일흔그루가 있는 ()에 장막을 친다. (27)

2) 만나와 메추라기(16:1~36)

(1)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에 관한 원망(1~3)

- ①애굽에서 나온지 둘째 달 십오일에 엘림과 시낸 산 사이 ()에 장막을 친다.
- ②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()한다.
- “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.”
- “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.”

(2)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심(4~12)

- ①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 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.
- ②이를 통해 하나님의 ()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신다.
- ③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을 거둘 것이다.
- ④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.
- ⑤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,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라고 말한다.
- ⑥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준다.
- ⑦모세는 여러차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()을 들으셨음을 알려준다.
- ⑧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며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.

(3)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림(13~20)

- ①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.
- ②아침에는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.
- ③모세는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명한다.
- ④이스라엘 자손이 거두고 보니, 모자람도 남음도 없었다.
- ⑤모세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을 명하였다.
- ⑥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것들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.
- ⑦모세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노하였다.

(4) 안식일 규례(21~30)

- ①사람들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만큼만 거두었고, 햇볕이 나면 없어졌다.

- ②여섯째 날에는 ()의 식물을 거두었다.
 ③모세는 백성들에게 ()에는 나가지 말고, 갑절로 거둔 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명하였다.
 ④모세의 명령대로 하였지만,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다.
 ⑤일곱째 날(안식일)에도 나갔다가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.
 ⑥모세는 저들을 책망하면서 안식일에 담긴 뜻을 설명해주고, 안식일에 아예 나오지 말라고 말한다.
 ⑦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()하기 시작했다.

(5)만나의 보관(31~36)

- ①이스라엘 족속은 아침마다 내리는 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.
 -만나 : 이것이 무엇이냐?
 ②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간수하라고 명하신다.
 -오멜 : 1오멜은 2.3리터, 1에바는 23리터이다.
 ③모세가 받은 ()과 함께 보관하기 시작하였다.
 -하나님의 언약궤 : 만나가 든 항아리, 십계명 두 돌판, 아론의 짹 난 지팡이
 ④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.

3)르비딤 사건(17:1~16)

- (1)반석에서 물이 나오다.(17:1~7)
 ①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,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().
 ②모세는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책망한다.
 ③백성들은 계속해서 물을 요구하면서 모세와 다툼을 이어간다.
 ④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토로한다.
 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려가서, 호렙 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신다.
 ⑥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다.
 ⑦이스라엘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인해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하였다.
 -맛사 : 시험하다. / -므리바 : 다투다.

(2)아말렉과의 전쟁(17:8~16)

- ①르비딤에 거하는 중에 아밀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인다.
 ②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고, ()는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간다.
 ③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, 손을 내리면 아밀레이 이겼다.
 ④모세의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.
 ⑤여호수아가 아밀렉을 무찔러 이겼다.
 ⑥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라 명하시고, 아밀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다.
 ⑦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낫시라 하였다.
 -여호와 낫시 : “여호와는 나의 깃발”이라는 뜻이다.

*성경암송 : 출애굽기 17:10~13